

일할만 하면 이동·사퇴·교체… 8개월만에 또 수장 공석

가스공사 “또 경영공백, 맥빠져”… 후임 이인호 유력

〈전 산업부 차관〉

정승일 전 사장, 산업부 차관 영전
노조 “선임 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년 만에 산업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가스공사가 약 8개월만에 또 수장공백기를 맞이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공사측은 다음주께나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노조측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장을 표명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정승일 전 사장이 지난달 27일 산업통장자원부 제1차관에 임명됨에 따라 김영두 사장이 직무대리 체제에 돌입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에도 경영공백기를 겪었다. 이승훈 전 사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사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안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완기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이르면 다음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장 선임 작

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등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공사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현재 공모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인사가 가스공사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이다. 이 전 차관은 정승일 전 사장에게 자리를 내준 이후 현재 퇴직한 상태다.

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강주명 국제가스연맹(IGU) 회장 등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공사 대내 외적으로 첨예한 현안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기관장의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된다”며 “신임 사장 선임을 위

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을 표명했다.

이어 “정승일 전 사장은 공사 구성원과 소통하며 의견을 경청하려 노력해왔지만 소신있는 결단과 책임있는 리더십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신임 사장은 가스산업 공공성 강화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측은 “사장 직무대리, 부사장과 본부장들은 공사의 미래를 바탕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기관장이 없어 추진동력이 없다는 광계로 무기력한 태도로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이한 현실인식과 폐배주의의 관성으로 대외적 변화에 만 부화뇌동한다면 주저없이 경영진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ISSA 아·태지역 총회서 우수사례 선정

근로복지공단

15개국 20개 기관서 76개 사례 심사
노동자 삶의 질 향상 기여 높은 평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8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사례(Good Practice Award for Asia and the Pacific)’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사회보장분야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와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PERKESO)이 주관했으며, 총회를 앞두고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5개국 20개 기관에서 제출된 76개의 사례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단은 ‘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한 산재 노동자 직업복귀 제고’ 사례로 우수상을, ‘임금체불보장제도를 통한 체불노동

자 생활 안정’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의료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로 구분된 재활 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총 89만 1518명의 체불노동자에게 3조 7402억원을 체당금으로 지원해 체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생계유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ISSA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수 사례를 세계 사회보장전문가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기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틈새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세미나 참가자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대상
스마트공장 동향·사례 구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4대 핵심기술 세미나’를 오는 5일과 11월 9일 2회에 걸쳐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세미나는 스마트공장 4대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설비 모니터링과 이상진단 ▲학습된 데이터를 통

해 이미지분석의 정확도를 올리는 딥러닝 기반의 비전검사 ▲컴퓨터 응용 해석(CAE)을 통한 간단한 최적설계 방안 제시 ▲협업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공장의 최신 동향과 도입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세미나 모집인원은 10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하며, 비용은 2만원(교재포함)이다. 교육 참가신청은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 등으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연수원 스마트기술연수팀으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천공항내 하늘정원, 한달간 무료개방

다음주 코스모스 개화 절정

코스모스 꽃밭 3만 6000m²가 조성된 인천공항 내 하늘정원이 무료 개방 중이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코스모스 꽃밭은 지난달 21일 개장해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다음 주에는 코스모스 개화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이용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로,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객 입장이 가능하다. 공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안내직원을 배치하고 대형 그늘막 1개소와 야외테

이블 1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늘정원은 공사가 인천공항동남쪽 유유지(38만m²)에 조성한 휴식공간으로,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모습과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천공항의 대표 명소 중 하나다.

코스모스 꽃밭 방문을 원하는 경우 공항철도 공항화물청사역에 내려 국제업무단지 방향 공항셔틀버스를 탑승한 후 하늘정원 임시정류소에서 하차하면 된다. 인천공항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로도 방문이 가능하고, 자가 차량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도 약 200면 가량 준비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하늘정원 꽃밭을 조성해 지역주민

을 포함한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올해 봄에는 유채꽃밭을 조성해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약 만여 명이 하늘정원을 찾은 바 있다. 지난 2일 기준 코스모스 꽃밭의 누적방문객은 1만 800여 명에 달한다.

내년에는 하늘정원에 화장실, 전망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설도 개선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지역주민께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인천공항 하늘정원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했다”며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한국중부발전, 하반기 신입사원 원서 접수

한국중부발전은 2018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하반기 채용에는 NCS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 채용방식으로 총 50명(대졸 34명·고졸 16명)을 채용한다. 특히 이번 선발에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한채용도 시행할 계획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직무적합도검사와 직무능력 평가, 심층 면접 등이다. 선발직군은 사무, 발전기계, 발전전기, 발전화학 직군으로 최종합격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또는 입사지원 홈페이지로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하여 청



/중부발전

년 고용률을 제고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